

전 생산라인 자동화, 품질 균일성 유지

품질우수, 가격 저렴한 초경량파렛트 개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경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수작업을 통한 갈판 형태에서 제품의 다양화, 대량 생산체제로 인해 물류의 이동이 자동화, 기계화를 필요로함에 따라 80년도에 들어서면서 파렛트의 개념이 물류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내쇼날푸라스틱(주)은 제2창업을 각오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올해를 흑자로 전환하는 해로 삼고 총 매출액 771억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쇼날푸라스틱은 목재파렛트와 철재파렛트의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틱 파렛트를 개발하고 KS마크를 획득하여 국내 최초로 시판하기 시작했다.

물류표준화규격인 T11형 파렛트(1100X1100)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사용실태에 따라 음료, 사료, 주류, 섬유,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자동창고용, 일반창고용, 핸드카용 및 일반 중량물 파렛트를 개발, 판매했다.

이 제품은 2-PIECES제품과 1-SHOT제품 SCHOELLER TYPE의 3가지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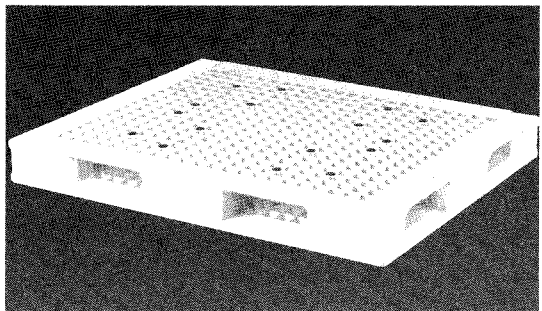
파렛트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공급받는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많은 종류의 제품을 개발, 보유하는 것이며 제품의 강도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초경량 파렛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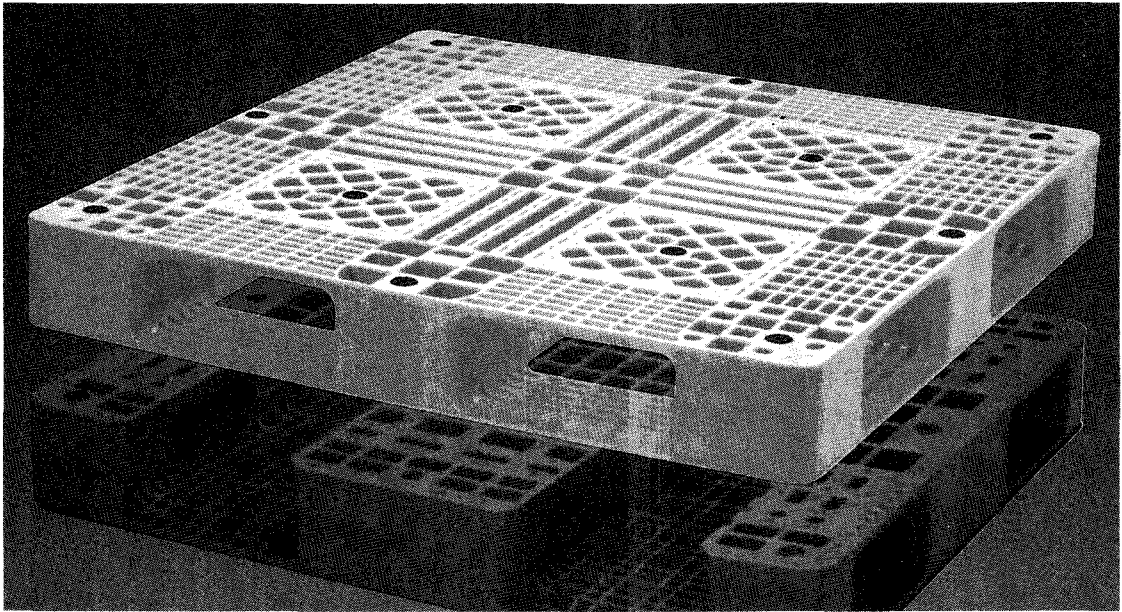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 측면에서 2-PIECES 제품류 보다 1-SHOT형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타업체와의 제품차별화를 이루어 갈 것이며 내쇼날의 경영이념인 '균 품질, 동일 가격'이라는 대명제 아래 최고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MIX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농수산물업체, 도매시장, 물류센터, 포장센터, 자동화창고 등 신설동의 신물류시장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신규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렛트시장의 선두주자로 KS마크를 획득하고 전공장에 1,600톤 이상의 대형사출기 보유로,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1-SHOT, 2-



▲ 자동화 및 중하중용 양면사용파렛트



▲ 중하중용 편면사용파렛트(핸드콩)

PIECES, SCHOELLER TYPE, 절첩식 파렛트 등을 연간 22,000톤 생산이 가능하며 전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시장은 영업본부에 컨테이너팀, 파렛트팀, 체어데스크팀이 조직되어 있고 본사에 시트사업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개지점을 가지고 있는 내소날푸라스틱은 연구개발에 총 10명을 투입하여 신제품개발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소날푸라스틱은 파렛트시장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조로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기존 업체간에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화정책에 힘입어 향후 시장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표준파렛트의 점유율을 30%이상으로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초경량화를

이루어 수익성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파렛트부문에서 물류표준화에 부응하기 위해 T-11형 일관 수송용 경량형 파렛트를 개발 자동창고형 대형파렛트를 개발한 내소날푸라스틱은 물류용기부분에서 T-11형 일관수송형 점보박스를 개발했으며 물류비용 최소화를 꾀하기 위해 회전식상자 및 절첩식상자를 개발했다.

내소날푸라스틱은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요구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류표준화 규격인 1100×1100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요구를 많이 듣고 있다.

예를 들면 유화업체는 1300×1100, 1350×1100, 제지업체는 950×650, 1100×800, 1280×950 등 동종 업체간의 파렛트 통일작업을 업계 스스로가 이루고 있으며 파렛트 제조업체에서는 동종업체간에 통일 규격 사용을 촉구해가고 있다. ☐